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I)

윤 일 수*

〈차 례〉

- | | |
|--------------------|------------------------|
| I. 문제 제기 | (2) 연애담의 인물 |
| II. 「만강홍」에 대한 접근 |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
| 1. 사건구성 | (1) 표류의 마무리 |
| (1) 표류담 형식 | (2) 연애와 마무리 |
| (2) 연애담 형식 | IV.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대비 |
| 2. 인물 유형 | 1. 사건 구성 |
| (1) 표류담 인물 | (1) 표류담 형식 |
| (2) 연애담 인물 | (2) 연애담 형식 |
|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 2. 인물 유형 |
| (1) 표류의 마무리 | (1) 표류담의 인물 |
| (2) 연애의 마무리 | (2) 연애담의 인물 |
| III. 장한철표류담에 대한 접근 |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
| 1. 사건 구성 | (1) 표류의 마무리 |
| (1) 표류담 형식 | (2) 연애의 마무리 |
| (2) 연애담 형식 | V. 맺음말 |
| 2. 인물유형 | |
| 1) 표류담의 인물 | ※ 참고문헌 |

I. 문제 제기

한글에 의한 작품 창작이 일반화되던 시기인 1914년에 창작된 한문 회곡 「만강홍」은 그 양식상의 독특함으로 인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영남대학교 강사

러한 표기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작품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그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 작품의 번안이나 각색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대 작품의 계승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그중 전자의 주장은 작품에 쓰이고 있는 백화문이 우리말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부정되지만,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강홍」의 작품 구성 및 작품 배경이 전대에 존재했던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강홍」이 이것의 현대적인 계승이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해 본다. 전자의 경우,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은 모두 표류담계 작품이지만, 다른 표류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타의 표류담이 표류만을 담은 단순구성인데 비해 「만강홍」은 연애담이 결합된 이중구성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꿈에 의한 미래 예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두 작품에 나타나는 표류지가 모두 오호해 상의 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건전개와 인물유형 그리고 꿈에 의한 미래 예시 등의 비교를 통하여, 작품들간의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 작품을 대비시켜 보아 그들간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 여부의 확인은 문학사의 두 가지 면에서 기여할 것이라 본다. 크게는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며, 작게는 이제까지 진척된 「만강홍」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힘으로서 「만강홍」이 가지는 작품의 가치를 국문학사에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이 있다. 그중 「만강홍」은 원본이라 추정되는 1914년 회동서관본을 바탕으로 한다. 나머지 하나인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에는 한문 소설인 「부남성장생표대양(赴南省長生漂大洋)」¹⁾과 국문 소설인 「표만리십인전환(漂萬里十人全還)」²⁾ 그

1) 한글번역본은 정명기편(1987), {한국야담자료집성2. 청구야담6}에 게재. 한문원본은 김우성·임형택(1973), {이조한문단편上}에 게재

2) 이원명이 1958에 경대사대 국어학회연구실 발행한 {동야취집}에 게재

리고 사실의 기록물인 장한철 표류담³⁾이 있다. 그런데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은 장한철 표류담을 후세 사람이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200자 원고지 80매 분량을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으로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 작품의 진면목을 살피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장한철표류담을 연구의 주대상으로 삼고,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을 보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Ⅱ. 「만강홍」에 대한 접근

「만강홍」은 본 연구의 주대상이다. 그러므로 먼저 「만강홍」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세 가지면에서 진행된다. 「만강홍」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사건의 전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유발시킨 등장인물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 갈래지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귀결점이 꿈에 의해 예시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 전개 양상

「만강홍」은 만강홍, 녹란, 이사남의 표류와 그 과정에서 세 사람간에 벌어지는 애정관계를 다루고 있는 복합구성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이야기 진행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표류담 구성과 연애담 구성이 그것이다.

(1) 표류담 구성

「만강홍」의 사건 전개의 중요한 한 요소인 표류는 항해의 출발에서 귀항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를 거친다. 그것은 시련을 당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

3) 장한철의 「표해록」은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인문과학6〉에 한문원본이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정병욱(1979)이 한글로 번역하여 범우사에서 〈표해록〉을 발행했다.

가는 과정의 반복이다. 여기에서는 7단계로 나타난다.

① 항해

만강홍은 추석이 되자, 어머니 묘에 성묘를 간다. 귀가길에 배가 강 가운데 왔을 때, 배를 태워달라는 사람이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그를 승선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

녹 란 배사공 할아버지! 배를 돌려대지 마십시오. 우리 아가씨 여기 계시니 탄 사람과 같은 배를 타기가 몹시 꺼려지며, 또 작은 배에 많은 사람을 받는 것이 역시 보통 생각할 일이 아니며, 또 이 가을날 바람새도 믿을 것이 못 되온대 항차 이 나루는 옛날부터 유명한 광나루요. 이 때는 또 팔월 중순이라 이 물결이 왕왕 광나루의 수세 이루니, 할아버지는 십분 깊이 생각하십시오.⁴⁾

규중에서만 머물던 만강홍의 바깥 나들이는 그녀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간접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녹란의 대사를 통해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작은 배에 여러 사람이 타는 위험, 바람이 변덕스러운 가을이라는 계절적 시기, 파도가 험하기로 이름난 광나루라는 공간적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행에게 자신들이 처한 위급함을 알린다.

② 표류(시련1)

배가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녹란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난다.

말이 끝나지 않아서 먹장같은 구름이 서북변에서 몽게몽게 일어나며 물새들이 훌훌이 짝 지어 울며 날더니 갑자기 칼날같은 광풍이 한 자리 몰려와 배를 치니 돛폭은 바람에 못 견디며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치 시들어진 파초나 가을 연꽃같고 배는 물 속에 들어가서 거북의 머리 용의

4) 권택무(1989), 240-241쪽
이종린(1914, a), 14-15쪽

篙師老爺여 舟不可回泊이로다 今我姐姐-住下在此기니 客人同舟의 嫌이 狼不相好오 且小舟多受人의 亦非尋常細慮며 又是秋天風日이 原不可信이온 況復此津이 偶是廣陵古名 이오 此時-又八月中旬이라 這波濤-往往作廣陵壯勢기니 老爺는 十分深思홀지어라

배에 부닥치도다⁵⁾

아아 세상에서 이른바 염라 지옥이란 것이 별곳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여기가 그곳이로다. 두어 시간이나 종이 지나고 또 너덧 시간 지나서 봉창에 가득찬 손님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바이 모르고 정신들이 다 나갔더니 홀연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를 듣고도 누가 와서 말하느니 모르더라.⁶⁾

만강홍일행이 탄 배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비바람에 의해 급습을 당한다. 독란에 의해 암시되어지던 사건 전환의 움직임이 실제화로 나타난 것이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에 길들여 있던 일행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무력할 뿐이다.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표류로 인해 급전환된 사건은 속도가 빨라져, 극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③ 표류지 정박

일행은 표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겨우 건진 채, 낯선 곳에 도착한다. 그곳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주거하던 생활 근거지와는 달리,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류 전의 세계에서 획득했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분 보장이나 물질적 뒷받침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그들의 노력에 의해 새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 원시적 무의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힘의 유무에 의해 지배자가 결정된다. 여기서는 사공이 강자로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5) 권택무(1989), 248쪽

이종린(1914. a), 24쪽

這未了ㄱ야 墨如頑雲이 潑潑從這西北邊起來ㄱ며 渚禽沙鳥-忽兩兩飛鳴터니 俄然-一席刀似狂 風이 來拍舟ㄱ니 這帆幅은 飽滿了 缺缺裂裂ㄱ야 好似敗蕪秋荷-樣이오 舟子는 沒入了波宮去ㄱ야 撲着龜頭龍背로다

6) 권택무(1989), 249쪽

이종린(1914. a), 25쪽

呵吽, 世所謂閻府地獄이 非別處-라 天上人間定此中이로다 好過了二點鐘ㄱ고 又過了四點鐘ㄱ야 滿窓客人이 生在死去를 摠不知ㄱ고 悠悠神魂이 一任他九原去了터니 忽聽得起來了起來了 這聲이 也不知誰人道來로다

사 공 하늘가 외딴 곳에서 살아갈 좋은 방침 하나도 없고 다만 저 조수가 지고 물이 드러나기만 기다려 발을 뺀고 기슭에 올라서 저 기슭 위의 시든 배와 병든 도토리⁷⁾와 저 바위 밑의 흰 고기와 조개로 목숨을 부지하다가 다행히 하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사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때든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간에 고기배가 지나가면 사정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길 밖에는 도리가 다시 없도다.⁷⁾

일행이 정박한 곳은 인적조차 없는 낯선 곳이다. 일정한 양식이나 거처할 곳도 없이 지나가는 배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자급자족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절박한 현실에 당면한 인물들의 행동 수축에 의해 사건 전개도 수축된다.

④ 도둑떼의 습격(시련2)

만강홍일행의 시련은 표류하게 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산 위에서 빈 절을 발견하고, 그 곳을 숙소로 정한다. 자신들이 정박한 곳이 군도(群島)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운다. 그 불빛이 사방에 퍼지자, 도둑떼들이 몰려와서 만강홍일행은 그들에게 붙잡힌다.

누가 알았으리요. 이 두 무더기 불빛이 사방 산천에 비쳐져서 못 사람의 습격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련쿠나 불앞의 열 손가락이 아직 녹지도 않아서 아아, 사면 팔방 여기저기서 사람마다 든 횃불이 번개처럼 산을 덮고 올라 오며 깊은 숲 지척에 맹호 같은 소리가 진동하여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머리털을 곤두세우더라.⁸⁾

7) 권택무(1989), 258쪽

이종린(1914. a.), 36쪽

篙…(前略)…地盡此頭에 生支辨法이 沒一般段好個方針이오 只待他湖落洲出호야 跋涉登岸了호야 這岸上杏梨病稼과 這巖底雪鱗鱗殼으로 托斯延生타가 何幸蒼天이 竟不殺吾們호야 一兩日間何時候던지 一樵船一漁艇過去호면 乞得歸鄉이오 也此上에는 一法子更沒了로다

8) 권택무(1989), 277쪽

이종린(1914. a.), 60쪽

誰知這兩道火光이 照財他十方山河호야 喚起了萬家弓棒이리오 可憐也火前十指尙未暖호야 呀, 四面八方十里五里에 頭頭火炬-電也似萬山上來호며 深林尺只에 獅吼虎踏의聲이 震動起來호야 豎盡寒人多少髮이로다

죽음에 직면했던 만강홍일행이 육지에 정박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하다. 그러나 도둑의 출현으로 사건 전개는 다시 긴축된다.

⑤ 구조

다행히 몰려 온 도둑떼의 우두머리는 만강홍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장별감이다. 그는 만강홍을 딸처럼 대한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만강홍 (가만히 혼자말로) 내가 지금 장별감댁으로 가기만 곧 하면 반드시 나를 따뜻한 구들목에 깊이 깊이 누이고 두터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줄 것이니, 오늘 저녁은 내가 편안히 한잠 쉬리라. 여기서 장별감댁이 이제 얼마쯤 남았는고, 한 걸음에 날아가지 못 하는 것이 한이로다.⁹⁾

표류하여 도둑떼들에게 붙잡혀 봉변을 당할 뻔 하던 만강홍 일행은 장별감을 만나게 되어위기를 면한다. 정세의 호전으로 사건 진행은 또 한번의 반전을 맞이하여 상승세를 탄다.

⑥ 도둑떼에게 잡힘

만강홍일행이 장별감을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섬주민을 만나게 되어 사소한 시비가 일어난다. 그 언쟁은 장별감과 섬주민의 생존 대립으로까지 확산된다. 그 불화의 원인은 장별감에게 있었다. 장별감은 성품이 어질지 못한 자로, 죄를 짓고 섬으로 표류해 와서 선량한 섬주민을 탄압했다. 그의 악행을 다년간 참아오던 섬주민들의 감정이 이 구타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섬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장별감을 제거한다. 따라서 그에게 보호를 받던 만강홍 일행은 다시 곤경에 처한다.

아아, 삼시간에 장내의 정경이 홀연히 바람불고 물밀듯 변하여 이 주먹저 발길이 우박처럼 내려 오며 갑자기 장별감을 큰 삼바줄로 뽕뽕 묶어서 묶은 버드나무 높은 가지에 거꾸로 매여 달았도다.

9) 권택무(1989), 282쪽

이종린(1914. a), 67쪽

紅 暗暗道我今張老爺家를 去則去き면 必將臥我乎深深裏暖突き고 被我以重重的厚衾糶지니 今

(존위라는 사람이 어깨를 으쓱 솟구치고 기를 울려 두 손을 내 저으며 군중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 한양서 온 사내 여섯은 여기 묶어 놓고 여자 들은 이 군중 속에 장가 못 간 이거나, 또는 홀아비가 있거든 하나씩 가지고 가거라.¹⁰⁾

장별감의 등장으로 호전을 맞아 상승하던 극 분위기가 장별감의 계세를 계기로 인해 급격히 침체한다. 표류한 만강홍 일행의 유일한 후원자인 장별감의 죽음은 상승세에 있던 사건 전개가 갑자기 하강하는 반전으로 느슨해진 극 분위기를 바짝 긴장시킨다.

⑦ 귀가

만강홍 일행의 이별로 침체기에 접어 들었던 사건 전개가 다시 호전¹¹⁾된다. 그것은 이존위집에 머물던 이사남이 포로로 잡혀온 강화군수의 딸을 발견하면서 이다. 도둑의 우두머리인 이존위는 그녀들의 석방과 이존위가 앞으로 선량한 삶을 살기를 청하는 이사남의 권유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른 섬주민에게도 착한 백성이 될 것을 권유한다.

이존위 우리들은 시운이 많이 어그러졌고, 또 이 세상에 한 몸뚱아리로 태어나서 기왕 영웅호걸이 못 되며, 또 좋은 세상의 착한 백성이 못 되고, 고기와 새우 따위로 이웃을 삼으며, 남의 것을 겁탈함을 일로 삼아서 의리에 어긋나고 어질지 못한 짓 한 것이 지금껏 여러 해로다. 지금에 와서 깨닫아 보니, 온 천하에 무슨 일이 못하며 온 세상에 무엇을 못먹어서 사람죽이기를 수로 삼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으리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종전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일체 새로운

夜는 吾當穩一眠호리라 此去張老爺家—今有幾多剩路오 恨不卽一步兒飛去로다

10) 권택무(1989), 284쪽

이종린(1914. a), 69쪽

呀, 一霎天滿場景色이 忽變了風蕩湖湧호야 左拳右踢이 甞如下來형며 俄然張別監好漢을 靑麻大索으로 縛—縛호야 老柳高枝에 倒以懸이로다

李尊位的, 肩也萬丈山嶺호고 氣也雙袖風生호야 向衆人道 這漢陽來的를 男的六頭는 此縛호고 女的二好는 今此衆人에 如有未冠者어나 又有已嫁者어든 —取與歸호라

11) 「만강홍」의 사건 전개는 인물의 동·퇴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것은 episode에 따른 peace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회곡 작품임을 증명해 주는 극작품의 특성이라 할 수 있

일에 종사하여 인의가 있는 사람으로 종이 될지이다.¹²⁾

장별감에게 가진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만강홍 일행에게 탄압을 가했던 섬주민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자, 그들이 헤어지게 만들었던 만강홍 일행을 재회하도록 도와준다.

아! 바다 길 간 길손이 십년을 어언 이섬에서 살았도다. 월조가 남쪽 고향을 그리워하고 대말이 북쪽 고향을 향해 우니 사람이 어이 돌아가지 않으리오 어이 돌아가지 않으리오.¹³⁾

다년간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던 일행은,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로써 표류담이 마무리된다.

(2) 연애담 구성

만강홍, 녹란과 이사남의 사랑은 처음 만남 이후,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어 결실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다. 이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이별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내고, 다시 재회하여 혼인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5단계로 나타난다.

① 만남

「만강홍」의 연애담은 삼각관계로 나타난다. 만강홍과 이사남 간의 연정이 익어가는 과정을 주요 줄거리로 하며, 부수적으로 만강홍의 몸종인 녹란도 그들 사이에 끼어 드는 형태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세 사람의 만남은 세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두 이사남의 계획적인 행동에 의해서이다. 만남이 거듭될 수록 그 친숙성이 더해진다.

다.

12) 권택무(1989), 292-293쪽

이종린(1914. a), 78쪽 원문에는 主翁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존위라 번역했다.

主翁 吾儕也! 時運이 多戾하고 又生此天涯一塊호야 既不爲英雄豪傑호며 又不爲聖世逸民호고 魚蝦爲隣호며 寇劫爲事호야 不義不仁이 于茲多年이로다 到今感覺호니 滿天下何事를 不曾爲호며 遍地上何物를 不曾食호고 殺人爲能호며 奪人爲食이리오 若等은 自今伊始호야 不念舊惡호고 一從新事호야 好作仁義人호지이다 如有不肯이면 我劍不鈍호라

13) 권택무(1989), 297쪽

이종린(1914. a), 83쪽

만강홍 …(전략)…아이구!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던졌을까.
담장 허물어진 곳은 나무 울타리와 가시 울타리를 성벽처럼
단단히 들렀으며 대문은 판자 문짝을 단단히 잠궈서 손톱 들
어갈 틈도 없으니 바깥 사람이 어이 들어 올 수 있으랴. 네가
이 못가 버드나무를 살펴 보아라. 그 버드나무가 한 가지는
못우에 늘어져 한들거리고 다른 가지는 구불이 담장 밖에 나
가 있으니. (말이 끝나지 아니하여)

녹 란 아이구 저것 저것, 연록색 두루마기를 보아요. 버들가지 걸친
담장에 사람의 그림자 어른거려요.¹⁴⁾

녹 란 …(전략)…이러지 않더라도 저기 녹색 옷을 입고 붉은 부채
부치는 묘령의 어떤 집 수상한 사람이 우리 일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가면 가고 우리가 서면 서더니 지금
은 길 동쪽 구석에 앉아서 우리의 동정을 살피고 있으니 그것
이 십분 매우 수상하거늘 또한 그 얼굴도 곱을 던지던 사람과
흡사합니다.¹⁵⁾

스스로 노를 저어 배를 돌려서 나그네를 태우니 나그네는 그 어떤
처음보는 사람이 아니라 푸른 옷에 붉은 부채 부치며 반나절이나 따
라 온 낮익은 총각이로다.¹⁶⁾

嗚呼라 海上行人이 於焉此十年島民이로다 越島戀南키고 垓馬嘶北키니 人胡不歸人胡不歸

14) 권택무(1989), 232-233쪽

이종린(1914. a), 6쪽

紅, …(전략)…呀, 是什麼件고 是什麼人投來到오 這牆垣缺處는 木柵荊籬가 圍似鐵瓮城一般이
오 這門口兒다 牢鎖着白板扉키야 瓜也無人隙이라 容有外一入來麼아 爾看這池畔柳樹키라 這
柳樹가 一邊枝다 娜키야 池面上垂在키고 一邊枝다 曲跬屈折키야 稍稍出牆키니 這末了키야
綠, 呀這個의(저것) 這個의淺綠周衣着키라 柳拂牆頭에 人影也乍로다

15) 권택무(1989), 238쪽

이종린(1914. a), 12쪽

綠 …(前略)…非此라도 怪底衣綠衣 扉紅扉키 一妙齡誰家兒子-我一行을 且前且後키야 我行 行
키고 我止止러니 今坐在路東偏키야 注視我動靜樣이라 這樣이 狼是十分殊常이이다 且 這 顏
色也-十分是投橋의兒로다

16) 권택무(1989), 241쪽

이종린(1914. a), 15쪽

柔櫓一聲에 泊岸登客키니 客人은 不是別樣的生面이라 也是青衣紅扉으로 半日半行的慣面總 角

첫번째 만남은 만강홍의 봄나들이에서 이다. 봄별에 취해 시를 읊는 낭만한 목소리에 혹한, 이사남이 곁을 던져 마음을 전한다. 두번째는 만강홍 어머니 성묘길이다. 이사남은 만강홍일행을 미행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드러낸다. 처음의 만남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데 비해, 두번째 만남은 보다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세번째 만남은 만강홍이 탄 배에서 이루어진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같은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이들의 감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② 연도

만강홍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이사남이 그녀와 같은 배를 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호감의 깊이는 급속한 발전을 보인다. 이사남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접근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총 각 …(전략)…내가 먼 발치로 보니 몹시 낮익은 모양이라 벌써부터 한 말씀하여 물어보고 싶었으나 옆 사람들이 께이하게 볼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이 안 나더니 지금 겨우 기회를 만난고로 마음에 있는 말을 하여 전날의 내 소원을 풀려 하오¹⁷⁾

총 각 …(전략)…수심어린 생각을 달래면서 글 한 수 읊으며 혼자 상심하니…(중략)…조용히 읊고 있을 때에 녹란이가 그러는 것을 보고 일변은 비록 무한히 가련하나 일변은 다시 서로 사귀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빨리 비단 주머니 끈을 풀어서 차곡차곡 사둔 청심환을 찾아내여 한 알도 남기지 않고 한 봉지를 몽땅 만강홍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

이로다

17) 권택부(1989), 242쪽

이종린(1914. a), 17쪽

總 …(前略)…且俄接遠面하니 狼是慣看樣이라 早已將一頭話야 一度問去니 恐或傍人見 怪

게 은근히 주면서 먹는 법을 일러 주더라¹⁸⁾

만강홍 …(전략)…제가 귀인과 일찍 한 번도 만남이 없으며 또 한 마디도 건넌이 없고 우연히 이때에 같이 타서 온밤 풍랑 속에서 죽고 사는 운명을 한 가지로 하니 보통 일이 아니요 또한 자신의 죽고 삶을 자신이 구하기도 겨를 없거늘 바다 같은 도량과 산같은 은의로 위급한 사람을 구하신 높은 품격 이 실로 몽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라. 제가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입고 시중 드는 처녀가 일생의 은덕을 받았으니 감사하움은 뻘에 사모치고 은혜는 죽어서도 갚으오리라¹⁹⁾

첫번째 접근은 주위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란의 매정한 반응으로 좌절된다. 두번째는 배멀미로 정신을 잃은 만강홍을 위해 독란에게 청심환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절박한 상태를 해결하는 형태로 쉽게 수용된다. 세번째는 사공이 청하는 약을 줌으로 이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제공한 약이 두 처녀의 목숨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 일때문에 세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③ 이별

이사남과 만강홍의 첫 만남 이후, 서서히 깊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다. 서로를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갈 무렵, 군도(群島)에 도착한 만강홍일행은 도둑들에게 붙잡힌다.

ㄱ야 想想沒奈何더니 今纔得當이라 故將心事ㄱ야 快償了嚙昔의願ㄱ노라

18) 권택무(1989), 246쪽

이종린(1914. a), 22쪽

總 …(前略)…沈吟此時에 見得綠蘭這樣ㄱ고 一邊은 雖則無限忍憐이나 一邊은 更作媒芳의 好機會ㄱ야 猛思一樣想起來로다 忽忽打開了一口兒錦裏ㄱ고 搜出了喇裸의 清心丸ㄱ야 一封也沒一粒尊ㄱ고 慟慟奇與泣紅人ㄱ야 詳細說與服丹法ㄱ되더라

19) 권택무(1989), 255-256쪽. 사공이 만강홍의 말을 총각에게 전달하는 대사인데, 편의상 화자를 만강홍이라 명기한다.

이종린(1914. a), 33-34쪽

老夫 …(前略)…妾與尊哥로 曾無一度의面ㄱ며 亦無一語의交ㄱ고 偶爾同舟ㄱ야 浩夜風浪에 死生一之ㄱ니 願非易易之事오 且自身之存沒을 自身이 求恤莫暇어늘 薄海何量과 如山 何義로 急人高風이 塞出夢想之所不到ㄱ야 妾蒙重生之恩ㄱ고 婢受一生之德ㄱ니 感可 肉於既

(앞으로 나선 흰 수건 두른 젊은 남자가 손뼉치며 말하기를)
홀아비가 여기 있노라

존 위 (만강홍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장삼랑은 저것을……

(다음이 나온 흰 수건에 수염이 긴 사나이가 머리를 저으며 말하기를)

장가 못간 자인 내가 여기 있노라.

존 위 (녹란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김이동은 저것 저것을…….²⁰⁾

이존위는 포로로 잡힌 만강홍과 녹란을 부하 중 혼자 사는 사람에게 준다. 따라서 만강홍을 따라 이곳까지 온 이사남은 그녀와 헤어진다.

존 위 아! 내 본관이 또한 완산이라하도다. 같은 성 같은 본관은 백대의 친척이라 하니, 뜻밖에 오늘 저녁에 친척을 서로 만나 보는구만. 이제 항렬은 물을 것 없이 나이 많은 자가 형이 되며 어린 자가 동생되어, 서로 의탁하고 지냄이 자네의 마음애 어떠하오.²¹⁾

만강홍을 잃게 되어 상심에 빠진 이사남은 이존위와 의형제를 맺고 그의 집으로 온다. 이로 인해 세 사람은 뿔뿔히 헤어지게 된다.

④ 그리움

만강홍을 연모하여 그녀를 따라온 이사남과 자신을 연모하던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만강홍은 표류라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깊은 연정이 생긴다. 비록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骨이오 恩當報於結草云云

20) 권택무(1989), 285쪽

이종린(1914. a), 69쪽

當先出來的 白巾靑面漢이 拍手道 已鰥者-在此호라

尊 指紅道 張三郎은 這個의……次出來的 黃巾長髮漢이 掉頭道 未昏者-即我在로다

尊位 指綠道 金二童은 這個의這個의……

21) 권택무(1989), 286쪽

이종린(1914. a), 71-72쪽

尊位 呀俺貴이 亦道是完山이로다 同姓同本은 百代至親이라호니 不意今夕에 得此至親相 見호라 面今에 行列也都不問말고 老年者爲兄말며 少年者爲弟말야 與之相托이 於汝心 上에

존 위 (그 가곡을 조용히 듣고 몹시 슬프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 사남을 불러서 척연히 말하기를)……(중략)…… 못난 이 형이 동생을 지금까지 머물게 한 것은 동생은 나이 찻고 이미 강을 건너 사나이로 장가들 시기를 놓친 지 몇해 됐으니, 못난 이 형이 좋은 짝을 얻어서 같이 돌려 보내려함이더 니, 이런 궁벽한 섬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라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노라.²²⁾

이사남은 만강홍을 장삼랑에게 빼앗긴 이후, 그녀를 대신할 배필을 만나지 못한다.

녹 란 우리들이 지금부터 오년 전에는 몸에 상주의 옷을 입은지라 그에 빙자하여 절개를 보전하였으며 상복을 벗은 이래로는 먼 할 길 없을새 음식을 먹지 않고 병을 앓는다하여 또한 지리한 세월을 보내도다.²³⁾

만강홍과 녹란도 이사남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록 그녀들이 장삼랑과 김이동에게 강제로 시집가긴 했으나, 이사남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녀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상중이라느니, 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남편을 피한다.

⑤ 재회 및 혼인

만강홍과 이사남은 긴 이별의 기간 동안에도 상대에 대한 연정을 간직하고 자신을 지킨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존위 부부의 도움으로 재회와 혼인을 한다.

何如오

22) 권택무(1989), 294쪽

이종린(1914.a), 79쪽

尊位 靜聽了這般歌曲호고 甚悲憐호야 招四男感然道 …(中略)… 賤兄이 留弟至今은 賢弟壯年이 已是渡江男兒로다 永泮佳期를 放過了多少年月호니 賤兄이 期得好個賢配호야 與 之同歸러니 顧此窮島에 竟無其人이라 坐是至今호라

23) 권택무(1989), 295쪽

이종린(1914.a), 81쪽

緣 我們이 前此五年호야 身環孝服이라 賴此全節호며 吉服伊來로는 無計可免일시 絶食稱病 호

존 위 (그날 밤으로 잔치 차비를 하고 날이 새자 어언사에 가서 김씨
댁 처녀와 이씨 총각이 부처 앞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니 판
중이며 만리 길 산과 바다에 표박하면서 서로 따랐으며 십년
간의 파란 곡절에 시달린 여생이 또 다시 오늘 저녁을 맞았도
다)²⁴⁾

그러나 「만강홍」의 연애담이 다른 작품과 다른 것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
에 의한 해피엔딩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함께 겪은 노비 녹란에게도 여주인공과 같은
혼인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사남 저 녹란은 비록 천한 바닥에서 태어난 몸이나, 정숙한 그 행
동과 현순한 그 덕성은 지혜있는 집에 가서 구하더라도 구하
기 어려운 사람인지라 항차 우리들과 같이 이 만리길을 서로
따라 왔으며, 십년을 버리지 아니한 정의가 있으니, 바라건대
부인은 풍파 만났던 일 깊히 생각하여, 시기하지 않는 덕행을
배풀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²⁵⁾

이것은 주종간이라는 신분타파와 연결되는 것으로, 작가 개인이 소유한
사상의 독특함에서 오는 결말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 유형

「만강홍」은 사건 구성이 표류담과 연애담으로 나누어짐과 마찬가지로

아 又度了支離年月이로다

24) 권택무(1989), 296쪽

이종린(1914.a), 82쪽

尊位 當夜로 準備了雁幣하고 第明天에 往於焉寺하야 金閨李郎이 於佛前에 結爲夫婦하니 看官
아 萬里山海에 漂泊相隨하며 十年風霜에 消磨餘生이 竟有此一夜로다

25) 권택무(1989), 297쪽

이종린(1914.a), 83쪽

李郎 愀然向夫人道 這個綠蘭은 雖則賤地寒身이나 幽閒這儀와 賢順這德은 求諸良家에 亦難其
人이라 況與吾們으로 此有萬里相隨 十年不去的情義하니 望我卿은 深念膠木之詩하야 將

그 사건을 전개시키는 인물도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표류담의 인물과 연애담의 인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류담의 인물-인도자·협력자·방해자

「만강홍」의 두 갈래의 사건 진행에서 하나의 맥을 이루는 표류담은 표류의 전 과정 동안 일행을 이끄는 인도자, 표류해온 일행의 생활과 귀향을 도와주는 협력자와 이에 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해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인도자-사공

사공은 배로 사람들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 주는 사람이다. 그런 만큼 강위에서 사공의 책임과 지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사 공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 손님 여러분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다 봉창 속에 들어 가서, 조금도 머리를 내밀지 말고 조금도 입을 벌려 서로 떠들지 말며 앉거든 굳게 붙들고 서로 의지하여야 하며, 늙거든 서로 가지런하게 하여서, 얼마가 지나든 어디에 이르든, 오직 이 늙은이의 지도만 기다리시라.²⁶⁾

사 공 (현옷을 입고 쥔신을 신고 사남을 보고 말하기를) 총각은 여기 앉아서 옷을 말리우라. 늙은 것은 손님 일동과 같이 저기 가서 밤을 따고 배를 주어 오리라.(또한 노란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가씨는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라. 나는 좋은 밤과 배를 구해서 한 치마 가득히 가져다 주리라.²⁷⁾

享壽斯之德이면 豈非好事아

26) 권택무(1989), 248쪽

이종린(1914. a), 24쪽

篙師 呀大事出大事出이로다 客人諸位는 男的女的老的少的의勿論하고 一切沒入篷窓去了야 一出頭하고 一不開口相노하며 坐어든 則要堅持相依하며 臥어든 則要着着相牙야 過了何時하며 到了何時하며 到了何地頭던지 只待老父指導하라

27) 권택무(1989), 264쪽

이종린(1914. a), 44쪽

篙着着舊衣하며 穿了草鞋하고 向四男道總角은 坐此曬了衣하라 老夫는 與一同客人으로 此去覓

사 공 저 산 위의 오랜 절이 아마 하늘이 주신 우리의 좋은 집이요.
땅이 우리를 위해 숨겨둔 정자로드. 저 속에서 묵으면서 쉬다
가 하루 이틀 바람과 찬 이슬을 피하며 다시 좋은 일을 꾸미
는 것이 옳겠다.²⁸⁾

「만강홍」에 등장하는 사공은 자신의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배가 표류하게 되었을 때, 승객들을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뿐
만 아니라, 표류지에 정박하여 굶주리고 지친 일행을 위해 음식과 숙소를
마련해 준다.

② 협력자-장별감

뜻밖의 재앙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굶주리고 지친 만강홍일행은
표류지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

별 감 혼난, 질병을 넘어서 사람을 서로 구하는 것은 사람의 떳떳한
감정이라. 우리들이 다같이 한양 사람으로서 이번 하늘 끝의
땅 위에 표박하게 되었으니, 사람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누
가 구하겠는가. 여기에 우리 집이 있으니 치우면 같이 칩고
더우면 같이 더우며, 나에게 양식이 있으니 밥이면 밥을 같이
먹고, 죽이면 같이 죽을 먹어서 며칠 간 바람새를 보다가, 다
행히 하늘 바람이 한 자리 잘 불어서 살아서 고향 산천에 돌
아가면, 이것은 실로 일생의 신기한 역사요 아마 오래오래 좋
은 이야기꺼리가 되리라.²⁹⁾

栗拾梨來호리라 且向綠蘭道女娘은 坐此待一待호라 翁將素好栗好梨호야 滿裙贈 與호리라
28) 권택무(1989), 273쪽

이종린(1914, a), 56쪽

爲 這山上古觀이 想是天賜我好館이오 地秘我名 樹로다 歇泊于那裏호야 經過了一兩天風露호고
再作良圖也可로다

29) 권택무(1989), 281쪽

이종린(1914, a), 66쪽

別監 患難疾病의 葡萄相救는 人類常情이라 吾們이 同是長干人으로 有此天涯地角的漂泊호니 人
不救人이면 更誰之호야 我此有居호니 寒則寒 暖則同暖호며 我此有食호니 飯則飯粥則同

그는 만강홍아버지의 옛 친구인 장별감이다. 만강홍이 처한 상황에 동정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만강홍 일행은 그를 만남으로써 다소 안정감을 찾는다.

③ 방해자-이존위와 섬주민

이존위와 섬주민들은 장별감과 불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별감이 이유도 없이 동료들에게 가한 폭행을 계기로 그를 제거한다. 따라서 장별감의 보호를 받던 만강홍일행은 적대시되어 불리한 처벌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강홍, 녹란, 이사남을 헤어지게 한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이들의 재회를 주선하여 혼인으로까지 연결시켜 주는 협력자로 변하는 입체적 성격의 인물이다.

(2) 연애담의 인물-남·녀 주인공, 대립자, 중개자

「만강홍」에 낭만적인 색채를 부여해 주는 연애담을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건 전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남녀주인공인 이사남과 만강홍, 그리고 여주인공인 만강홍과 남자 상대자를 가운데 두고 대립관계에 있는 녹란,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중개자인 이존위 부부 등이다. 각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남·녀 주인공-이사남, 만강홍

이사남과 만강홍은 재색을 겸비한 인물이다.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연모하게 되어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끝내 그것을 극복해내고,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 과정은 앞의 장³⁰⁾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인물의 성격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게는 사내 아이가 전혀 없고 다만 귀여운 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을 만강홍이라 부르더라. 그 딸은 그리 아름답고 뛰어나지 않았더라도 사내 아이 열 백보다 더 사랑하겠거든 그의 재주 뛰어나고 모양도 절색

粥^ㄴ야 度了幾天的風日이라가 何幸也天風이 好借了一席^ㄴ야 生還故居山河^ㄴ면 此實一生

이니 쥐면 꺼질가 불면 날까 애지중지한다는 비유도 부족할 정도더라.³¹⁾

만강홍 저 총각은 강기슭의 내 몸에 무슨 칩고 더운 관계가 없으나
그 풍류는 천상에도 보기 어려운 신선같은 남자요 인간 세상
에서 본 일 없는 호걸이로다³²⁾

전통적인 연애담에서 남녀 주인공들이 뛰어난 재색을 소유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이들은 그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기때문에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대립자-녹란

녹란은 여주인공 만강홍의 몸종으로, 상하신분 관계이다. 그런데도 자매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한다. 그런만큼 만강홍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녹란은 이사남의 등장으로 그에게 자신의 단짝을 빼앗기게 될까 봐, 질투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강홍과 이사남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녹 란 나와 아가씨는 신분은 주인과 시중드는 사람 사이나 정은 형제라, 꽃싸움 피리장난하던 어릴 때부터 한 그릇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에 잤는데 하늘이 어이 시기하고 귀신이 어이 꺼려서 무한한 풍파를 다 겪게 하고도 남은 액운이 상기 미진하여 이 같은 외딴 곳에 와서는 필경 한 그릇의 밥을 못 먹으며 같은 이불에서 자지 못하고 내 밥동무, 내 잠 동무를 순순히 만

의奇說歷史오 抑亦千古的好個談料(이야기거리)로다

30) 연애담식 사건 구성

31) 권택무(1989), 229쪽

이종린(1914. a), 2쪽

斷斷無他丈夫兒子호고 只生下可憐可惜的一女子호니 名喚滿江紅이라라 那個女-不是佳艷穎 敏 이라도 愛勝他丈夫兒十百커든 那更是穎穎艷艷호니 拋波吹揚은 不足爲喻-러라

32) 권택무(1989), 270쪽

이종린(1914. a), 52쪽

사람에게 사양하여 주어야 하니³³⁾

그러나 만강홍과 녹란이 장래에 같은 남편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시가 있자, 두 사람은 땡땡하게 대립한다.

만강홍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말 들으니 관중이여! 누가 알 리요. 내 그 때 까닭없이 한 가닥 시기하는 마음 움뒀더라).
굳이 말한 어떤 여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네가 아닌가?³⁴⁾

만강홍 …(전략)…너는 본래 우리집 천한 종이라. 어찌 나와 같이 어 깨를 걸고 한 남편을 섬기리요. 참말로 이것은 개새끼나 새새 끼로다. 가슴은 두 방망이질을 하고 눈은 쌍심지를 켜서 그 런 분한 기운을 어찌 참을 수 있으랴. 여기 칼이 있으면 쥐고 저의 혀를 잘라놓고 여기 빨래 방치가 있다면 당장 저의 머리를 박살을 내리라.³⁵⁾

그러나 표류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는 동안, 만강홍의 감정 변화로 갈등은 원만하게 해소된다.

③ 중개자-이사남부부

이사남은 만강홍과 녹란과 헤어진 후, 수년동안 배필을 만나지 못해 혼

紅 聽了這話하고 暗暗地想來호니 這個總角은 於我映江紅身上에 沒了什麼寒暖的關係-나 這樣 風流는 天上難見的仙郎이오 人間未有的豪傑이로다

33) 권택무(1989), 264쪽

이종린(1914. a), 43-44쪽 「만강홍」에는 화자를 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綠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綠 吾與姐姐로 分則奴主-나 情은弟見이라 越自鬪花弄笛時代로 飯則同碗하고 腹則同食이라 가 夫何天兮猜神兮忌호야 無限滄劫을 閱盡了하고 餘厄이 尚未盡호야 至此絕域호야는 必竟食 不得同碗호며 腹不得同食하고 我飯友我腹友를 好議與別人去호니

34) 권택무(1989), 268쪽

이종린(1914. a), 49쪽

紅 聽了這三人一家的勾호니 看官아 誰知我那時에 無緣無故히 一條妬心이 己는萌動了로다 硬硬 道 何許女兒은 云是那人家 莫是汝의아

35) 권택무(1989), 271쪽

이종린(1914. a), 52-53쪽

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존위가 이사남에게 마땅한 배필을 구하는 일때문에 걱정한다. 그때 그의 부인이 만강홍과 녹란의 근황을 전해주며 그녀들을 배필로 맞아들이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부인의 말에 따라 이존위는 만강홍과 녹란의 소재를 확인한 후, 이사남과 혼인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소식을 알지 못하던 세 사람은 이존위 부부의 도움으로 재회하고, 혼인을 올리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들의 결합이 있기까지는 이존위부부의 중개자적인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항해에 지친 만강홍과 녹란은 졸음에 빠졌을 때, 꿈을 꾸다. 그 꿈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꿈들이 미래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은 몇 단계의 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만강홍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녹란이 그꿈을 해몽해 내고, 다시 자신이 꾸 꿈을 덧붙여 확실성을 굳히고, 마지막으로 현실 속의 사건을 통해 확인한다.

미래 예시적인 꿈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표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애에 관한 것이다.

(1) 표류의 마무리

만강홍 일행이 낯선 표류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꿈 속에 나타나 그 섬의 이름을 알려준다. 만강홍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표류에 관련된 미래 예시적인 내용이다.

만강홍 …(전략)… 거기에 거울같은 못이 하나 있고 못 가운데 석가산이 있어서 …(중략)… 그 쪽배를 타고 석가산에 올라가니 한 사람의 발자욱도 바이 없고 길에는 가득히 도화가 피고 봄은 적막한데 중간에 천연석탑 한 자리가 있으니 높이가 한길은 종이 되고 탑면에 회미하게 몇줄의 옛 글씨가 적혀 있더라. 내가 비석에 긴 푸른 이끼를 닦고 자세히 읽어 보니 웃줄은 어언도요 다음 줄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삼위일체불

이 여기에 출현한다 하였더라. 신기하게도 내가 본 그날이 곧 거기 적혀 있는 그 해 그 달 그 날이로다.³⁶⁾

만강홍은 단지 꿈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자 녹란이 해몽을 해준다.

녹란 …(전략)…그 못 속의 석가산은 곧 바다 가운데 있는 외딴 섬이요. 어언이란 것은 곳 섬 이름이요.³⁷⁾

녹란은 만강홍의 꿈을 그림직하게 해독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자, 자신이 꾸 꿈 이야기를 덧붙인다. 그림으로써 만강홍의 꿈에 대한 자신의 해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 녹란의 꿈은 만강홍과 같이 단순한 미래를 미리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만 귀향할 수 있는가도 나타낸다.

녹란 …(전략)…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이 땅은 오호해 중의 어연도요. 저 무리는 곧 섬 사람들이라 몸 형태는 비록 짐승같으며 생활은 비록 어질지 않으나 처음에 권모술수로 대하고 점차 의리로 사귀면 십년이 못가서 자연 좋은 결가 있으리라.³⁸⁾

紅 …(前略)…汝의는 本來我家賤婢라 安得與我로 比肩事一丈夫리오 眞個是大兒의 鼠離의로다 胸兒也兩砧擡上키고 眼兒也雙柱出來키야 這樣憤氣로 那得忍住키 此有刀劍이면 即將把這舌斷키고 此有砧棒이면 即將打這碎로다

36) 권택무(1989), 267쪽

이종린(1914. a), 47-48쪽

紅 …(前略)…那裏에 有一鑑古池키고 池中에 有石假山키야 …(中略)…乘道小舟키고 上了石假山키니 正沒有一人跡이오 滿遍桃花春寂寞키딴 中有天然石一塔키니 高可一丈이오 牆面에 依稀有數行古篆키더라 我拭了蒼蘇雨花키고 詳細看一看키니 上行은 於焉島오 次行은 某年某月某日에 三位一體佛이 再現于此라키엇더라 稀奇也是日이 卽其年其月其日이로다

37) 권택무(1989), 268쪽

이종린(1914. a), 49쪽

綠 …(前略)…這池中石假山은 卽海中孤島오 於焉은 卽島名이오

38) 권택무(1989), 269쪽

이종린(1914. a), 51쪽

녹란의 해몽과 증명이 너무나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만강홍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산에 올라갔던 사공이 돌아옴으로 일어난다.

사 공 …(전략)… 산 위에 옛 절이있고 절 앞에 탑이 있으니 높이가 한 길 남짓되며 탑면에 몇 줄 글씨 있으니 특히 큰 글자로 쓴 것은 어언사요 그 나머지는 이끼 끼고 돌이 살아서 볼래야 보지 못하겠고 절 앞과 동쪽에 모다 하룻기의 오솔길이 있어서 숲속 바위 틈을 뚫고 나갔고 절 안에는 찾았으나 중은 없고 다만 세 금 부처가 한 줄로 앉았으며 상 위에는 흙으로 구은 향로 몇 개가 있고 거기에는 자단향 몇 대가 있어서 절반쯤 탄 채 꽃혔으니 생각컨대 하루 이들 사이에 피우고 간 것이라³⁹⁾

사공이 산위에서 보고 온 절의 모습은 조금 전 만강홍이 꿈속에서 본 것과 똑 같다. 이와 같이 만강홍과 녹란의 꿈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녹란이 꿈에서 마담에게 들은 경계를 지켜해만 귀향이 가능하다. 실제로 만강홍과 녹란은 강제로 시집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남편에게 상중이며 병중임을 빙자하여 잠자리를 피하고, 그들이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는 신각씨가 되어 절개를 보존한다. 그렇게 해서 이사남과의 의리를 지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만나 함께 귀향하게 됨으로 만강홍의 어머니가 꿈속에서 예시한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강홍과 녹란의 꿈은 미래 예시적이라 할 수 있다.

綠 …(前略)…若輩는 母相驚懼호라 此地는 嗚呼海上於焉島로 這群은 卽島人이라 形身也-誰則獸身이오 生活也-誰則不仁不義-나 始以權術호고 漸之以理義호면 不度了十個星霜호야 自有好個結果리라

39) 권택무(1989), 273쪽

이중린(1914. a), 55쪽

고 …(前略)…山上에 有浮屠古觀호고 觀前有塔호니 高可丈餘호 塔面에 有數行書호니 大書特

(2) 연애의 마무리

만강홍 일행이 표류하도록 만든 작가의 진정한 이유는 만강홍, 녹란, 이 사남을 하나의 가정으로 묶기 위한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생활의 범주에 머무는 동안은 녹란과의 상하관계에서 주인의 입장에 있던 만강홍이 몸종인 녹란을 자기와 동일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류하여 긴 시간을 보낸 뒤에는 녹란의 존재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사람이 하나의 애정 관계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예시는 만강홍의 꿈을 통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만강홍 …(전략)… 내가 어떤 증세도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하여 앓으면서 몇달째 낳지 않았는데 때는 마침 삼월 삼진날이던가 보아 그 날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라 …(중략)… 위에는 가는 한산모시 훌적삼에 은행색 별무늬 놓은 판사 겹적삼을 입었고 아래는 갑삼팔 비단 누비바지, 송화주 단속옷, 도화색 순인 치마를 입었으며 눈 같이 흰 무명의 외씨같은 버선, 버들에 꺾꺾리 노는 모양 수놓은 신으로 자지색 양산을 짚고 집앞에 나서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 참말 알미울 지경이다. 갑자기 골방 뒤로 아가씨 아가씨하고 연해 부르며 제비처럼 나오는 이는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너였는데 나와 꼭 같고 약간 색다른 모양은 치마가 연한 람생주이더라.⁴⁰⁾

만강홍 …(전략)… 아이! 저 도화 숲 속에서 한 묘한 젊은 총각이 언뜻 나오니 깨끗하고 준수하게 생긴 모습이 결코 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분명 하늘에서 내려왔도다. 그 남자가 대단

字다 於焉寺오 其餘는 吾沒石生(돌이살아)하야 看不見得이오 觀南觀東에 俱有一條 微路하야 透出茂林叢石하고 觀內에다 尋不見僧이오 只留三位金佛하야 一列坐在하며 床有土爐數座하고 爐有紫檀香數枝하야 半燒插在하니 想是一兩日間燒去樣이라 見於此에 可證山下有人이로다

40) 권택무(1989), 266쪽

이종린(1914. a), 46쪽

紅 …(前略)…我有無何證奇病이라하야 吟吟呻呻連月不淸일시 是時다 想是上已節天氣오 是日은 正是我的一落人間初日이라…(中略)…上穿의다 細韓苧白單衫 銀杏色星紋官紗接 積衫이

히 낮익은 사이처럼 우리 둘에게 인사하고 말하기를 제가 두
아가씨와 서로 만난지가 어언 일천 팔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
안 편안하셨소. 전생에 다 풀지 못한 원을 이생에서 꽤히 다
풀시사라고 하고 회오리바람이 닥치는 앞으로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덥석 쥐고 배에 태우니 내가 어찌 놀라지 않겠느
냐.⁴¹⁾

그러나 만강홍의 꿈에 나타난 미래에 대한 예시는 암시적인 형태로 보여
졌기 때문에, 만강홍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내지 못한다. 녹란의
도움을 받아 해독이 가능하다.

녹란 …(전략)… 그 증세 없는 기이한 병은 곧 상사병이요. 그 삼월
삼진 날씨는 곧 복숭아꽃 활짝 피는 시절이요. 그이 세상에
날 날은 곧 어른 되는 날이요. 그 은행 적삼 도화치마는 곧 걸
혼하는 자리에 입은 긴 단장이요. 제가 연한 푸른색 치마를
입은 것은 아마 자리에 별방마마의 차림일 것이요.⁴²⁾

녹란 …(전략)… 꽃숲 속에서 나온 한 사람과 아가씨 한 분과 또 어떤
여자 하나로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좋은 징조로소이다.⁴³⁾

녹란의 해몽을 통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 만강홍은 자신의 몸종

오 下着의는 甲三八陽樓比袴 松花紬短裏衣(俗稱단속옷)桃花色純仁裝이며 雪白木瓜子襪柳
黃繡鶯樣靴로 杖下了紫鶯色蝴蝶傘하고 出了堂下立하야 我願我樣하니 眞個是可惜이로다 俄
然曲房裏로 連呼姐姐하며 鶯也似出來的는 不是別人的라 卽汝의인디 一樣樣我樣似오 一分
兒異色態는 裝是靑淺色藍生繡이더라

41) 권택무(1989), 267쪽

이종린(1914. a), 48쪽

紅 …(前略)…呀, 這桃花林中에 閃出一妙少年好漢來하니 淸儀秀骨이 決非吾烟塵境人物이 오
正是天上來的로다 這條好漢이 很是價面樣으로 掛余兩人道小生이 與兩位女娘相見이 於焉千
八年星霜이로다 別來無恙가 前生未遂의願을 今生也快償了로다하고 一團風也似來 前하야
遂把吾兩人手하고 携之登舟하니 我-那得不驚가

42) 권택무(1989), 268쪽

이종린(1914. a), 49쪽

綠 …(前略)…這無何證奇病은 卽相思病이오 這上已節天氣는 卽桃花時節오 這一落人間初日은
卽成人的日이오 這銀杏杉桃花裝은 卽醴禮席端粧(진단장)이오 小女의靑淺裝은 怪是別房媽

이 자기와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에 강한 모욕을 느낀다. 그래서 녹란을 모욕하며 그 예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녹란은 자신의 꿈을 덧붙여 진실함을 증명한다. 나아가 만강홍의 꿈에서는 어렵פות하게 투영되던 상대 남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녹란 …(전략)… 마나님은 태연히 슬퍼하지 않고 조용조용 말하기를 너희들의 남편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너희들의 꽃 나이가 열 다섯이 못 되어서는 우리집 사람이었거니와 이제 남에게 시집 갔으니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모다 너의 남편에게 맡겨졌는지라. 내가 어쩔 수 있느냐고요.⁴³⁾

세 사람의 연애담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점진적인 형태로 명료화되던 예시는 실제로 현실화된다.

부인 그의 뜻을 알고 그 날로 꿈 녹란과의 주인과 심부름꾼의 옛 신분을 타파하고 자신이 친히 비녀를 꽂아 주어서 남편의 사중을 나누어 받드니 삼위일체불의 꿈이 이제 와서야 효험을 나타내더라.⁴⁵⁾

처음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예시를 들었을 때는 완강히 거부하던 만강홍의 현실 수용으로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된다.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만강홍이 어머니의 경계대로 녹란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연애담은 꿈의 예시대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媽的本色이오

43) 권택무(1989), 268쪽

이종린(1914. a), 49쪽

緣 …(前略)… 桃花中出來의 一人 姐姐一人 又何許女子一人 三人一家의 好狀이로다

44) 권택무(1989), 269-270쪽

이종린(1914. a), 51쪽

緣 …(前略)… 媽媽-晏不悲憐하고 徐徐道 若輩의 丈夫人이 在此하니 若輩다 勿驚勿懼하라 若輩의 芳齡이 未到十五야는 卽我家家人이 어니와 今既適他하니 死汝活汝-總汝丈夫人 句當이라

「만강홍」의 연애담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암시적인 것에서 추리에 의해 형상화되고, 다시 구체적으로 증명되던 예시가 마지막에 가서는 현실화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명료화되기까지의 점진적인 과정이 이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Ⅲ. 장한철 표류담에 대한 접근

장한철 표류담은 여타의 다른 표류담들이 표류담을 주로 하는 단일구성을 띠고 있는데 비해, 연애담을 포함하고 있어 낭만적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 허구적인 색채를 더해주는 꿈에 의한 예시가 나타난다. 이러한 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 구성

장한철 표류담은 장한철 일행의 표류를 주 줄거리로 하고, 부수적으로 이야기의 낭만성을 더해주는 연애담이 첨가되고 있다. 이들 두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류담 구성

장한철 일행이 항해를 시작하여 귀향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다루고 있다. 그것의 극복에 의해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개된다. 그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① 항해

제주섬에 사는 장한철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친구 김서일과 섬을 출발한다. 장한철이 서울행을 감행한 것은 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란 뚜렷한 명분이 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절실한 이유는 절도(絶島)에 태어난 탓에 평생 변화한 서울 구경 한번 못한다는 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가 이런 절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번번이 서울이 변화하단 말만 들었지 한번 유람할 생각을 평생 염두엔들 둘 수 있었겠소만 이제 다행히 진사(進士) 시험을 보러 가게 되어 나라의 풍물을 구경하자던 소원이 풀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그대도 나와 같이 서울에 가보기를 주선해 봅시다그러.⁴⁶⁾

섬사람으로서 육지 나들이라는 어려운 일을 눈 앞에 둔 장한철 일행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사건 진행상의 특성에 따라, 고조된 극분위기가 곧 침체할 조짐을 보인다.

② 표류(시련①)

노어도를 지나게 되어 그곳에 정박하고자 하나, 닻에 삼지가 없어 닻을 내리지 못한다. 때마침 일어난 동풍에 의해 서해로 떠 내려간다. 배가 거센 물결에 휩쓸리자,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한다. 그래서 배안에 물이 가득 고여 침몰할 위기에 처해도,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마냥 울부짖기만 한다.

배에 탄 사람들은 노도에서 바람을 만난 뒤부터는 모두들 살아날 길이 없으리라고만 믿었던지 뱃멀미로 까무라쳐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면, 다만 슬피 부르짖고 통곡할 따름이다. 밤은 이미 캄캄하여 동서를 분별할 수가 없는데 바람은 까불어대고 비는 마구 퍼붓고 배는 풍랑에 들쭉인다. 배 밑으로는 사정없이 물이 새어 들고, 배 위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 배 안에 고인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게 되어, 물에 빠져 죽을 재화가 시각을 다투는데, 뱃사람들은 배에 고인 물을 퍼내려 하지 않는다. 애써 퍼내보아야 별수 없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않고 자빠져 있을뿐이다.⁴⁷⁾

45) 권택무(1989), 297쪽

이종린(1914. a), 83쪽

夫人 認其微意 是日에 卽與緣蘭으로 打破了奴主舊分 親自挿與簪 分奉丈夫人巾櫛
 幸히 三位一體佛의 夢이 今來果驗이러라

46)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9-20쪽

장한철(1961), 157쪽

吾輩生在絶域 每聞京師之繁華 而一遭遊覽 永無其期 幸今槐黃之行在 卽觀國之願將仲 子 吾與我
 同周旋於簞輿之下

47)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26-27쪽

항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야기 분위기의 침울함으로 인하여 사건 전개가 느려진다.

③ 표류지 정박

장한철은 삶의 의지를 상실한 일행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어, 항해를 계속한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섬을 발견한다. 그곳은 다행히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릇 사슴이란 산에 사는 짐승으로서 이 짐승이 살려면 들에 나는 다복쑥을 먹어야 되고, 혹은 연못에서 물을 마셔야만 되지. 이것이 이 섬엔 샘이나 시냇물이 있다는 증거야. 또 이섬은 바다에서 보면, 마치 한 조각 조그마한 섬과 같으나, 이 섬은 틀림없이 남북이 길고, 동서는 좁을 것이고, 분명히 조그만 섬이 아닐 거야.⁴⁸⁾

바다의 거센 비바람과의 싸움으로 지친 사람들이 육지에 정박하게 되자, 이야기 전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④ 해적떼의 약탈(시련②)

무인도에서 새해 아침을 맞은 일행은 항수에 잠긴다. 그때 멀리 지나가는 배가 보여 구조를 요청한다. 그들은 왜인 해적떼였다. 구조를 청하는 표류인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약탈을 행한다. 이로소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 비탄에 빠지게 된다.

왜인들은 서로 무어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나 야만인의 말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윽고 왜인들은 칼을 빼어 휘두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몸에 걸친 옷을 발가벗기고는 뽕뽕 묶어 나무 위에다 거꾸로 매댄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옷을 벗기고는 거꾸로 걸박해 놓고 주머니

장한철(1961), 158쪽

舟中之人 自驚島逢風之後 自分必死 非淚於水疾昏倒不省者 則惟以哀號痛哭爲事 頃之夜色昏黑 不辨東西 風簾雨注 孤蓬出沒 自舟底而水多漏入 自船上而雨如翻盆 船中水深 已沒半腰 淪溺之患 迫在時刻 而舟人皆堅臥不起 無意算水者 知其終亦必亡矣

48)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48쪽

속을 두루 뒤적거리더니, 백사렴의 쌍주를 손에 넣고, 또 막(幕) 속에 있던 생복 등을 가져 가며, 다만 양식과 옷만을 남겨 두고 서로 떠들며 타고 왔던 조그만 배를 타고 돌아가 버린다.⁴⁹⁾

표류지가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친지들과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축되던 분위기가 해적떼의 약탈에 의해 더욱 수축된다.

⑤ 구조

지난번 구조를 청한 사람들에 의해 약탈을 당하며 낭패를 본 일행들은 또 다시 도적을 만날까 봐, 구조를 청하길 꺼린다. 그러나 장한철은 모든 배가 해적선은 아니라며 설득한다.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들은 그냥 지나쳐 버린다. 먼 뱃길에 표류자를 보살피 주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다른 무리로 부터 떨어져 가던 한 배에 의해 구조된다.

우리들은 일제히 호곡(號哭)하며, 머리를 수그리며 애걸하는 모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배는 한 마디 물어보는 일도 없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린다. 그렇건만 사람들의 울부짖으며 도움을 애걸하는 소리는 끊임 줄을 모른다. 그 배는 갑자기 노를 돌리더니 우리를 향해 와선 닻을 내리고 배를 세운다.⁵⁰⁾

지나가는 배에 의해 구조된 일행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어, 사건의 분위기는 다시 상승한다.

장한철(1961), 161쪽

夫鹿者 山之獸 其爲生也 食野之筍 或飲干池 此則島有泉溪之驗也 且此島 自海中見之 雖似一片小島 此島其必南北長而東西狹 明非小島也 吾聞海中之原 未三十里者 蹄角不能生 今以有原 推之則島之大 必過三十里矣 然宜有民居而間作無人之地 甚可怪也

49)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60쪽

장한철(1961), 163쪽

卽見倭人 相與喧嘩而語音侏離 不可曉也 良久 倭人揮劍咆哮 亦脫余衣服 綳縛倒懸于樹上 又取諸人 脫衣縛倒 遍探其篋中 獲白土廉之雙珠 又取幕中所在生蠶等物 而只遺糲米衣件 相與哄哄乘小艇而去了

⑥ 제2의 조난(시련③)

구조선이 한라산을 지척에 두고 항해를 하자, 일행은 선주(船主)에게 곧바로 귀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 말을 들은 배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싸움을 벌일 기세다. 그것은 탐라 사람들이 오래 전에 안남태자를 살해한 사실이 있는데, 배에 있던 안남사람들이 제주출신인 장한철일행에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임준의 중재로 장한철 일행은 부서진 자신들의 배로 옮겨 탄다.

옛날 탐라왕이 안남 세자를 죽였으므로, 안남 사람들이 상공이 탐라인임을 알고 모두 칼로써 배를 잘라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만방(萬方)으로 달래서 근근히 그 마음을 돌렸읍니다. 그러나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는 옳지 않으니, 상공은 마땅히 이로부터 길을 나누어 가는 것이 좋겠읍니다.⁵¹⁾

이제는 귀향할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들 뿔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그 배에서 추방되어 사건 전개는 다시 침체기를 맞는다. 귀향의 지점에서 다시 조난당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가장 급격한 극 전환이라 할 수 있다.

⑦ 귀향

갖은 고생끝에 청산도에 닿는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기운을 차린 뒤, 여러 곳을 거쳐 나당진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동향사람들을 만나 귀향한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쌍오(雙梧)를 질하여 뵈옵고 다시 처자를 마주 대하니, 온 집안이 슬픔과 기쁨으로 그 동안 지내온 일을 이야기하랴, 또 이야기하다 보면 슬프고 기쁜 나머지 눈물은 바다를 이루었다.⁵²⁾

50)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64쪽

장한철(1961), 164쪽

我諸人 齊聲號哭 合乎叩頭 以示乞憐之狀 彼船猶不相問 暫然過去 而諸人之呼哭乞救之聲 猶不絕也 彼船 忽回棹向我而來 下碇留船

51)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78쪽

장한철(1961), 166쪽

昔 耽羅王 殺安南世子 故安南人 知相公爲耽羅人 皆欲手兩其腹 以報國讐仇等 萬方勉諭 僅回其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전개되던 사건은 귀향으로 마무리된다. 항해로 인해 들뜬 분위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말부도 고조된 상태에서 마무리된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환희 때문이다.

(2) 연애담 구성

장한철 표류담에서 낭만적인 색채를 더해준 연애담은 장한철과 조씨녀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의 연모에서 혼인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시련과 그 극복의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① 만남

장한철은 상당수의 일행을 잃고 청산도에 도착한다. 이곳에 이르는 동안 죽은 이를 위해 제를 올린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당에 구경을 간다. 그곳에서 제를 지내러 온 노파에게 술대접을 받는다. 놀랍게도 술상을 들고 온 여인은, 얼마전 꿈속에 나타나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주던 사람이다.

“낭자(浪子)께선 멀리서 온 손님인데, 나에게 술이 있는 이상 어찌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하며 나를 맞아서 사당 아래 앉게 하고는, 소복(素服)한 미녀(美女)에게 시켜 나에게 먹을 것을 올리게 하며, 술 항아리를 기울여서 또한 마시기를 권하게 한다.…(중략)…나는 처음으로 소복한 여인을 보았다. 마음이 몹시 즐겁다. 정을 담뱃 담고 던지시 눈을 돌려 살펴보니, 마치 낮은 익으나 누군지 기억할 수 없는 사람같다. 그 여인이 나에게 음식을 갖다줌에 미쳐서, 돌연 깨달은 바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바다에서 풍파(風波)를 만나 까무라쳐 정신을 잃었을 때에 나에게 음식을 갖다주던 바로 그 여인이다.⁵³⁾

장한철 표류담이 사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꿈에 의해 예시된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장한철 표류

心 而猶以爲不可與讐人同舟而濟 相公 當自此而分路矣

52)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22쪽

장한철(1961), 173쪽

還鄉本土 願以萬死餘生 歸拜雙梧 更對妻孥 閨門悲喜 聲淚并發矣

53)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03쪽

담만이 가지는 독특함이라 할 수 있다.

② 연모

꿈에 나타난 소복의 여인을 실제로 본 이후, 장한철은 그녀에 대한 연모가 짙어진다. 그래서 김만련에게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김만련은 품종 매월을 통해 장한철에 대한 조씨녀의 마음을 떠본다. 그리고 그녀가 장한철에게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이 만날 기회를 마련한다.

저녁 때가 되어서, 김만련이가 매월과 같이 와서, 손님께서 꿈 속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매월이가 전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마음 속으로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서 별로 준절히 물리치는 기색이 없었다 하니, 이는 곧 허락하는 거나 같습니다. 더우기 그 어머니가 오늘 밤 산사(山寺)에 초례를 올리러 갔으니, 손님께서 탐화투향(探花偷香) 하시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고 일러 주며, 또 매월을 보고는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다.⁵⁴⁾

장한철은 조씨녀를 꿈에 한번 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연모하게 된다. 조씨녀 또한 장한철이 자신을 꿈에서 보았다는 남자이기때문에 호감을 갖는다. 두 인물의 이러한 행동은 실제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허구적으로 비친다.

③ 혼인 약속

장한철은 조씨녀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조씨녀의 방에 잠입한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조씨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받아들여 백년가약을 맺는다.

전일에 꿈 속에서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 밤 잠자

장한철(1961), 170쪽

郎子遺客也 我有旨酒 豈無待賓之禮乎 遂邀余 坐應下而使素服美娥 進食于余 傾壺而勸之…(中略)…余之初見素服之娥也 心甚欣然 脈脈偷眼 似是熟面而不能記也 及夫進食于余也 悅然 記得乃傾者 風波昏夢中 進食之娥也

54)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11쪽

장한철(1961), 172쪽

리의 즐거움도, 하늘이 전생(前生)에서 못다 이룬 연분을 풀었고, 오늘 밤 다정하게 만날 기회를 마련하여 주셨는가 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년 고락(百年苦樂)을 오직 남자만 받들고 누리고 싶습니다만, 남자(郎子)께서 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⁵⁵⁾

꿈속에서 본 여인을 실제로 만났고, 순간적인 그 한번의 만남으로 백년 기약을 맺는다는 설정이 다분히 허구적이라 할 수 있다.

④ 이별

두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들은 혼인을 할 수 없다. 장한철은 고향으로 돌아가 과거시험을 쳐야한다. 그리고 조씨녀는 어머니를 섬에 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씨녀는 장한철과 5년을 기약으로 헤어진다.

저는 어머니 친척집에 가 있으면서 남자께서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섬은 돌아보아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 적적하고 편지도 받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어찌 이 속에서 늙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남풍(南風)이 불 때 좋은 소식이나 전해 주십시오. 저는 꼭 오년(五年) 기한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자께서 만약 기한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면 그때에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겠습니다.⁵⁶⁾

두 사람의 만남과 혼인의 약속 뿐만 아니라, 이별마저도 쉽게 이루어져 허구적인 색채가 더해진다.

夕時 金萬鍊 偕梅月來 謂余曰 俄聞梅月所傳趙女聞客夢中邂逅之設 若有情於感遇而別無辭於峻斥 是許之也 況其母 今夜修醮于山寺 客之探花儉香 不可失此會也 遂教梅月曰 如是如是

55)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13-114쪽

장한철(1961), 172쪽

前日夢裡之逢 事非偶然 今夜枕上之歡 天與其便 以前生未了之緣 辨今宵多情之會 從今以往 妾當失死靡它 百年苦樂 惟郎子是仰 不知郎子

56)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15쪽

장한철(1961), 172쪽

妾當往托母倚 以待郎子之決科矣 顧此島中 人煙杏隔 魚雁難憑 何可終老此中乎 郎如不棄 可因南風時惠德音也 妾當以五年爲限而待之 郎若過限不來 則始可委質他門矣

⑤ 재회

기록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여타의 기록물과 이것을 소설화한 『동야취집』소재의 〈표만리십인전환〉에서는 장한철은 과거에 합격하여 제주도의 대정현감을 거쳐 강원도 취곡현령⁵⁷⁾을 지낸다. 그리고 조씨녀를 소설로 삼았다고 전하다.

이로부터 몇년 뒤 장생은 등과하여 고성 군수에 이르렀다고 전한다.⁵⁸⁾

처 조씨녀를 첩으로 삼고, 몇년 뒤 장생은 등과하여 고성군수에 이르렀다.⁵⁹⁾

실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허구적으로 비친다. 반면 결말부를 구성하는 두 사람의 재회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마무리된다.

2. 인물 구성

장한철 표류담의 구성이 표류담과 연애담의 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인물의 유형도 표류담의 인물과 연애담의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표류담의 인물-인도자, 협력자, 방해자

표류담을 전개시키는 인물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장한철 일행이 표류한 이후, 육지에 닿기까지 무리를 이끄는 인도자, 표류한 사람의 생활과 귀향을 도와주는 협력자, 표류자들의 귀향을 저지시키는 방해자 등이다.

57)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66), 12쪽

58) 『청야담』의 「부남성장생표대양」

伊後幾年張生登科至高城郡守云云

59) 『동야취집』의 「표만리십인전환」

妻趙女作妾後幾年張生登科至高城郡守

① 인도자-사공

사공은 배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솔하고 책임진다. 따라서 책임이 막중한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장한철이 탄 배의 사공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상 대장(船上大將)이라 함은 곧 사공을 이르는 말로써, 매사를 지휘할 권한이 모두 사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공은 배가 표류한 뒤로는 입을 봉한 듯, 손이 묶인 듯, 능히 한 가지 일도 지휘하질 못하고 남의 입만 쳐다보고, 마치 제비 새끼 먹이를 기다리 듯 하고만 있으니 그래 그 꼴이 뭐냐. 너는 대장직을 사양하고, 밥 끓이는 병졸이나 되는 것이 어쩔고.”⁶⁰⁾

대신 사공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팽개친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장한철이 부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야기의 기록자가 장한철임을 감안해 볼 때, 필자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할의 무게 중심을 인위적으로 옮긴 때문이 아니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② 협력자-임준과 청산도 주민들

임준은 호산도에 조난당해 있던 장한철 일행을 구조한다. 뿐만 아니라 배에서 안남인이 장한철 일행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저지하여 목숨을 구해준다. 따라서 장한철 일행이 표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인물이다.

임준 이외에도 장한철 일행이 두번째 조난을 당했을 때, 우호적인 행동을 보인 협력자로는 청산도 사람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표류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귀향을 도와 준다.

③ 방해자-왜인 해적과 안남인

장한철 일행이 처음 조난을 당해 호산도에서 구조를 청했을 때, 온 왜인

60)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32쪽

장한철(1961), 159쪽

言稱船上大將 乃沙工也 謂其每事揮之都在沙工也 此沙工則漂流之後 鹹口束手 不能指揮一事 但仰他口頭 有如燕兒之待哺 爾欲讓大將 而甘作火兵乎

들은 귀향을 도와주기는 커녕 약탈한다. 이로 인해 장한철 일행이 구조를 요청하는데 수축된 태도를 보이도록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한철 일행이 표류동안 이중적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 방해자라 할 수 있다.

안남인들은 과거에 자기네 나라 태자가 탐라인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때문에, 탐라출신인 장한철 일행에게 보복하려고 한다. 그 위험으로부터 장한철을 겨우 목숨을 건지기는 하나, 구조소에서 추방되어 다시 조난을 당한다. 장한철 일행이 한 항해에서 두번씩이나 표류하도록하여 귀향을 지체시킨 방해자라 할 수 있다.

(2) 연애담 인물-남녀주인공, 대립자, 중매자

연애담은 이야기를 엮어가는 남녀 주인공인 장한철과 조씨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척되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대립자, 마지막으로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중개자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① 남녀주인공-장한철과 조씨녀

남주인공인 장한철은 학덕을 겸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표류중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낸다. 뿐만 아니라, 저하된 일행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임기응변도 꾸며댈 줄 아는 재치도 소유했다. 표류 전(全) 기간동안 다방면에 걸쳐 보여준 열변은 그가 폭넓은 학식의 소유자임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연애담의 남자 주인공으로 충분한 자격을 소유했다고 본다.

여주인공인 조씨녀는 뛰어난 자색을 소유한 미망인이다. 이 두 요소의 병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을 유발시키므로 연애담의 주인공으로써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대립자-곽순창과 조씨녀 전 남편의 친척들

장한철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므로, 조씨녀와 갈등관계에 놓일 사람을 찾는다면 장한철의 본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표류담 속에는 본가에 남아 있는 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립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남녀 주인공의 사이에 끼어들어 삼각관계를 만드는 인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립자의 표현이 희박한 것은 장한철의 양반이라는 신분상의 체면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바도 크지 않나 한다.

다만 장한철과 조씨녀가 밀접한 사이로 발전하는 것을 꺼리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것은 청산도 주민인 곽순창과 조씨녀 전남편의 친척들이다. 곽순창은 장한철이 조씨녀를 만나 이후, 노심초사하며 잠을 못이루자, 그를 경계시킨다. 그녀는 상중의 미망인이므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조씨녀 전남편의 친척들은 조씨녀와 장한철이 밀접한 관계로 발전한 이후, 그들의 눈을 의식하여 고향을 떠나도록 하는 간접 세력으로 작용한다.

③ 중개자-조씨녀 모친과 김만련

사당에서 제를 올리고 있던 조씨녀의 모친이, 그곳에 구경하러온 장한철에게 술대접을 자청한다. 그리고 조씨녀에게 술상을 들여보낸다. 그래서 조씨녀와 장한철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기로 장한철의 연정이 싹트고, 그것이 조씨녀에게 까지 전달되어, 두 사람이 혼인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김만련은 조씨녀에 대한 장한철의 감정이 깊어졌을 때, 장한철이 조씨녀의 침실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조씨녀의 모친이 혼인의 계기를 제공한 간접적 중개자라면, 김만련은 혼인이 성사되도록 한 직접적인 중개자라 할 수 있다.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장한철 표류담은 사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작품으로 간주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꿈에 의해 미래에 대한 예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한철 일행의 표류와 장한철의 연모가 어떻게 결말지어지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표류의 마무리

장한철은 자신의 표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인가를 예상한다. 그것은 꿈의 예시에 의한 것이다. 예시는 두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한번은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나머지 한번은 표류중에 이루어진다.

아아. 내가 작년에 이번 여행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조천관(朝天館)에서 순풍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꿈에 등영구(登瀛丘)에 오른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언덕은 한라산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수석(水石)이 뛰어나게 아름답고 풍연(風煙)이 맑고 고와서 제주도에서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이다. 내가 꿈에 여기에 올라가서 이곳 경치를 즐기고 있다가 문득 절벽 위를 보니, 바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중략)……어느 누가 내가 가이 없는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나, 호산도 섬속에서 해를 보내고, 서울에 몇십일을 머물어 있다가 한식(寒食) 날에 떠나게 됨을 미리 헤아려 알고 있었던고.⁶¹⁾

비록 예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항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다가, 표류를 극복하고 귀향한 이후에야 그 의미를 파악한다. 따라서 꿈이 예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표류 중에 꾸은 꿈은 그 기능을 다한다.

어제 밤 꿈에 나는 고향에 가 있었다. 감나무 잎사귀는 파릇파릇하게 막 돋아나고 버드나무 그늘이 한참 무르익었는데, 짐엿 아이가 손으로 앵도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무릎 위에 끌어 안았다. 그러다가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면서 깨어보니, 보이는 것은 엉성한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을 뿐 몸은 배 창문가에 나동그라져 있다. 서일을 발로 차서 깨우고 꿈 이야기를 했다. 푸른 버들, 붉은 앵도는 사오월이나 볼 수 있는 것이니 내가 고향에 돌아갈 시기는 내년 여름이 될 것 같소.⁶²⁾

61)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122-123쪽

장한철(1961), 173쪽

噫 余於昨年 是行之未發也 候風在朝天館 夢中登登瀛丘 丘在漢拏山北 水石佳絕風煙清研自是瀛洲之一區勝地也 余夢登此者 以余樂在此 而見絕壁之上 有刻書曰…(中略)…誰料余行 萬里漂海 經歲於虎山之中 數旬留京 啓程於寒食之日乎 固知人之禍福 自有前定 有不可免也

62) 정병욱 역, 장한철 저(1979), 67-68쪽

장한철(1961), 165쪽

往夜余夢 到家山 見柿葉初長 柳陰正濃 而家兒手弄櫻挑 抱着膝上矣 仍欠伸而覺 但見疏燈自照 身在蓬窓邊耳 蹴起瑞一 說與夢事曰 碧柳紅櫻 自是四五月之時物也 余之歸期 來夏其徵也

이미 표류를 당한 상황이므로, 언제 귀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꿈이 예시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해낸다. 비록 꿈의 내용이 사소하긴 했으나, 표류자에게 귀향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애의 마무리

장한철이 조씨녀를 연모하여 혼인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는 꿈이다. 장한철이 표류에 지쳐 의지가 약해졌을 때, 꿈속에 등장한 조씨녀는 그를 따뜻하게 돌봐 준다. 조씨녀는 비록 꿈에 그쳤을 뿐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보금자리와 같은 안락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장한철의 무의식 세계에서 연모의 대상으로 깊이 자리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녀가 실제 인물로 등장했을 때, 장한철이 그녀에게 매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조씨녀는 현실세계에서도 꿈에서와 같이 장한철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한철은 조씨녀와의 동침 이후, 마음의 안정을 찾아 표류를 극복해낸다. 표류자의 상당수가 귀향 이후, 병을 앓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한철은 건강하게 살아 남아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도 오른다. 이것은 장한철이 조씨녀에게 받은 심리적 안정의 도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한철과 조씨녀 간의 연애담은 꿈의 예시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대비

1. 사건 전개

(1) 표류담 구성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은 표류라는 상황을 전개시키는데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① 항해 이후, ② 풍랑으로 표류하게 되었다

가, ③ 배가 파도에 밀려 낮은 곳에 정박하게 되고, ④ 그 곳에서 도둑의 습격을 받는데, ⑤ 다행히 협력자를 만나 구조되나, ⑥ 다시 도둑떼에게 잡히거나,⁶³⁾ 조난을 당하는⁶⁴⁾ 시련을 겪게 되나, ⑦ 끝내 그것을 극복하고 귀향하게 된다는 이야기 전개 양상을 띠고 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①~③까지의 사건 전개는 같으나, ④~⑥까지의 사건 전개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 ⑦에서 다시 같은 형태를 띤다.

「만강홍」의 경우, ④~⑥까지의 과정이 표류지에서 처음 도둑떼의 습격을 받았을 때, 다소 놀라긴 하나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도둑떼의 무리속에서 협력자인 장별감을 만나 구조된다. 그러다가 장별감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존위의 등장으로 장별감이 거세됨으로 협력자를 잃은 만강홍 일행이 다시 시련을 겪는다. 그러므로 표류지에 정착한 이후, 겪게 되는 시련과 이것의 극복은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의 파벌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물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다소 가볍게 드러난다. 표류지에서 처음 만난 도둑은 왜인 해적으로 약탈을 마치고, 사라진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명나라 상인에 의해 구조된다. 그러므로 약탈자인 왜인 해적과 구조자인 명나라 상인 간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안남인들이 사사로운 감정⁶⁵⁾ 때문에 장한철 일행을 죽이려 할 때, 명나라 상인들이 이들을 저지한다. 그렇지만 안남인과 명나라 상인간의 이해관계나 감정의 대립은 없다. 그러므로 인물간의 갈등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은 표류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바탕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발생하는 인물간의 갈등 양상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만강홍」이 상당히 복잡성을 띠는데 비해 장한철 표류담은 다소 단순하다. 이것은 사실의 기록물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허구를 가미시킨 창작물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63) 「만강홍」의 경우

64) 장한철 표류담의 경우

65) 과거에 탐라인이 안남국 태자를 살해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탐라출신인 장한철 일행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2) 연애담 구성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은 사건 구성에 있어 표류담의 전개 외에도 연애담을 병렬적으로 사용하여 이야기를 엮어간다. 두 작품 모두 연애담을 전개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①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② 그들 간에 서로를 연모하는 감정이 싹트고, ③ 그 감정이 무르익을 무렵, 뜻밖의 일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고, ④ 서로를 그리워 하며, 주위의 유혹에도 절개를 잃지 않고 살아가다가, ⑤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혼인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나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두 작품은 ①~②의 남녀 만남에서 연정이 깊어가는 과정까지는 같으나, ③~④의 전개에서는 순서 상의 차이를 보이다가, ⑤ 혼인의 성립이라는 결말부에서는 다시 같아진다.

두 작품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면, 「만강홍」은 만강홍, 녹란, 이 사남 간의 연모가 깊어진 상황에서 이존위에 의해 만강홍과 녹란이 낮은 사람과 강제로 혼인하게 됨으로써 이사남과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강홍과 녹란은 이사남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비록 강압적으로 혼인을 하지만, 남편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사남도 만강홍과 녹란을 잊지 못해 혼인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회하게 되었을 때 혼인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장한철 표류담은 장한철과 조씨녀는 첫 만남 이후, 두번째 만남은 동침으로 이어진다. 그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고, 연한을 정한 기다림을 약속한 이후, 헤어진다. 그 뒤 두 사람의 결합은 약속의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만강홍」은 세 사람이 혼인을 약속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연모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절개를 지킨다. 반면 장한철은 두 사람이 동침한 이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재회를 전제한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강홍」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의 순수함으로 인해 깊은 감동을 주는데 비해, 장한철 표류담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두 인물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감동의 경중은 단순히 사실의 기록과 창작물이라는 데서 오는 차

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작품에 삽입되어 있는 연애담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에 있지 않나 한다.

「만강홍」의 경우는 작품 내에서 두 이야기 간의 무게를 따진다면, 연애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애담이 작품의 중심 스토리가 되고, 표류담은 연애담의 주인공들이 사랑의 결실을 원활히 맺을 수 있도록 설정한 요소의 일부에 불과하다. 작품의 배경으로 쓰인 표류는 연애담의 진행을 수월하게 한다. 사실상 만강홍이 이사남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표류 이후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녹란과의 갈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사남을 놓고 녹란과 형성된 갈등이 처음에는 침예하게 대립되다가 결말부에 가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것은 표류기간 동안 이루어진 의식의 전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강홍」은 사건 전개에 있어 연애담이 주가 되고, 표류담이 부수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은 독자의 관심을 응집시키는 기술 상의 탁월함이 드러난다. 이것은 만강홍과 이사남의 만남에서 연모까지의 과정이 암시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단계적인 표면화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강홍」에서 연애담이 강조된 것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연애담이 만강홍, 이사남, 녹란 등의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강홍과 녹란과의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작가의 사상과 관련지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작가가 일생을 바쳐 심혈을 기울렸던 천도교의 인간 동등사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만강홍과 녹란 사이에 존재하던 주종관계라는 신분의 와해는 인간 동등화의 실현이다. 이것은 바로 작가의 종교적 이념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표류라는 특수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의 경우는 「만강홍」과는 달리 표류담이 주가 되고, 연애담이 부수적으로 되어 있다. 장한철 표류담은 사실의 기록에 그치므로, 「만강홍」과 같이 작가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 아니다. 단지 표류기간 동안 겪은 사실을 기록한 것에 그친다. 그러므로 표류기간 동안 겪은 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것의 부분으로 연애담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류라는 엄청난 경험에 비해 연애가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사대부인 장한철이 상중에 있

는 여인을 취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더 크지 않나 한다. 그래서 연애담은 특이한 경험의 하나로 부분적으로만 첨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은 표류담과 연애담의 혼재라는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이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물 유형

(1) 표류담의 인물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두 갈래의 이야기 중 한 줄기라 할 수 있는 표류담을 이끌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다. 여기에는 일행을 이끄는 인도자, 일행이 표류에서 안전하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그리고 표류한 일행에게 역경을 더해주는 방해자 등이 있다.

인도자역을 담당하는 사공은 「만강홍」의 경우, 사공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다. 따라서 표류한 일행이 불안에 덜 휩싸이도록 최대한 도와준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에 등장하는 사공은 배가 난파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배를 수습하여 일행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자신이 더욱 허둥댄다. 배의 우두머리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공을 대신하여 장한철이 무리를 이끈다. 따라서 장한철의 존재가 부각된다. 이와 같이 두 작품 간에 보이는 사공의 능력의 유무 차는 실제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자의 시점 차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강홍」은 3인칭 시점에 의해 기술되었기에 다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은 1인칭 시점에 의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주관성을 떨 수밖에 없다. 특히 표류담은 모험담의 일환이므로 제3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영웅화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장한철이 익명인 사공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표류해 온 일행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협력자가 두 작품 모두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강홍」에 등장하는 협력자인 장별감은 만강홍 아버지의 옛 친구로서 만강홍과도 구면이다. 따라서 그녀가 표류하여 어언도로 떠밀려 왔을 때, 기꺼이 도와준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에 등장하는 임준이나 청산도 주민은 장한철 일행

과 아무 관계도 없으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준다. 즉 인지상정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해 관계가 내포되지 않은 보다 단순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표류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일행에게 방해자는 더욱 큰 시련을 안겨준다. 표류 일행은 방해자로 인해 가중되는 시련을 극복해 내야 한다. 두 작품 모두에서 방해자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강홍」에 등장하는 이존위는 만강홍, 녹란과 이사남 등을 헤어지게 만드는 방해자이다. 그는 만강홍일행을 도우려는 장별감과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미움이 만강홍일행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존위는 처음에 세 사람을 이별시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 사람이 다시 만나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협력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에 나오는 왜인 해적과 안남인은 장한철 일행에게는 아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왜인 해적은 사육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약탈했을 뿐이고, 안남인은 자기 나라 태자를 죽인 탐라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철 일행에 대한 분노는 그들 본인에 대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탐라인의 대변인으로서 이다.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므로 임준에 대한 중재로 복수심을 가라앉히는 것도 용이했으리라 본다.

이상에서 두 작품 간의 창작물과 기록물의 차로 인한 두 가지 상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상의 시점 차에 의해 「만강홍」이 장한철 표류담보다 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만강홍」의 협력자와 방해자가 서로 적대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무관한 만강홍 일행마저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협력자와 방해자의 사이가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각각 사육을 채우거나, 막연한 동정심의 발로로 인해 표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들간의 갈등이 비미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애담의 인물

앞에서 살펴본 표류담 이외에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을 이끌어 가는 다른 한 줄기의 이야기가 표류담인데, 이것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있다. 거기에는 연애의 주인공이 되는 남녀, 두 주인공의 애

정이 깊어가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대립자, 멀리 헤어져 있던 두 남매의 결합을 도와주는 중개자 등이 있다.

연애담의 주인공이 되는 남녀는 「만강홍」의 경우, 만강홍과 이사남 모두가 재색을 겸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연애담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사남이 만강홍을 처음 본 이래, 그녀에게 접근해 가는 모습이나, 두 사람 간에 연모가 깊어져 간 형태를 섬세한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애틋한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기법이 두 사람의 연애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한다.

다음으로 연애담의 구성인물 중 대립자를 살펴보면, 「만강홍」에 등장하는 녹란은 비록 여주인공인 만강홍의 몸종이긴 하지만, 친 자매처럼 자라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남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자, 만강홍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시기한다. 녹란은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끼여들어 삼각관계를 맺는다. 이들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 의한 예시로 이루어진다. 그 예시를 받은 이후, 만강홍과 녹란의 갈등은 급격하게 심화, 발전한다. 그러나 이들간의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따라서 대립자의 개념이 희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에서 대립자 역할을 하는 괄순창이나 조씨녀 전남편의 친척들은 녹란에 비해 소극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괄순창은 장한철이 조씨녀를 처음 본 이후, 연모하게 되어 전전궁궁하자, 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주는데 그친다. 그리고 조씨녀 전남편의 친척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청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씨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그래서 조씨녀 스스로 청산도를 떠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만강홍」에서 대립자인 녹란의 역할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장한철의 신분이나 당 시대상으로 비추어 보아, 조씨녀와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담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킨데 있지 않나 한다.

마지막으로 연애담의 인물 중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중개자를 살펴보면, 「만강홍」에서 오랫동안 헤어져 살던 만강홍과 이사남을 다시 만나도록 추천하여 혼인시켜주는 인물은 이존위부부이다. 그런데 이존위는 과거에 만강홍, 녹란과 이사남을 헤어지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이

존위는 두 연인을 떼어놓는 방해자 역할을 했다가, 뒤에 다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중개자로 변신한다. 이러한 입체적 인물에 의해 극이 급전환되어 재미를 더해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은 조씨녀 모친이 장한철에게 술대접하기를 자청함으로써 조씨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들 만남의 중개자 역할은 조씨녀 모친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연애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긴장미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김만련의 중개도 감정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관계를 맺도록 한다. 그러므로 연애담으로서의 낭만성이 상실되었다. 이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표류자와 과부라는 특수한 상황의 인물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만강홍」의 경우는 허구로 이루어진 창작물이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나 연모가 점차 농도를 더하여 단계적으로 심화되는데 반해, 장한철 표류담의 경우는 한번의 우연한 만남 이후, 곧 바로 결함된다. 따라서 감정이 성숙이 부족하다. 그리고 「만강홍」의 대립자인 녹란이 두 연인 사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중개자인 이존위가 입체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에 반해 장한철 표류담의 대립자나 중개자는 지극히 소극적이며 직접적인 행동의 부재로 인물 간의 갈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창작물과 기록물이라는 차이도 있긴하지만, 장한철 표류담의 기술자의 신분이나 시대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꿈에 의한 미래 예시

(1) 표류의 마무리

「만강홍」이나 장한철 표류담의 인물들은 표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귀향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꿈의 예시에 의해서이다. 귀향의 예시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예시의 과정은 두 작품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만강홍」에서 처음 귀향에 대한 예시는 만강홍의 꿈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암시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꿈을 꾸는 만강홍이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 녹란의 해몽에 의존하여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녹란은 자신의 해몽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자신이 꾸는 꿈도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귀향을 이루기 위해 그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린다. 두 사람의 꿈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현실 상황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자, 귀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꿈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시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시가 단계적인 증명의 형태로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달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시험을 통과하는 과제의 설정은 작품 구성상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장한철 표류담의 귀향 예시는 상당히 초보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허구성이 가미되지 않은 사실의 기록물이란 점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장한철은 자신의 귀향 시기를 알리는 꿈을 두 차례 꾸는다. 처음 꿈을 꿔올 때는 표류를 당하기 이전이므로 꿈이 암시하는 바를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두번째 꿈을 꿔올 때는 표류를 당한 상황이므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귀향을 알리는 꿈의 예시는 그 형상화에 있어서 두 작품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그것이 표류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연애의 마무리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인물들은 표류의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낭만성을 부여해 주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표류지에서 배필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되리라는 꿈의 예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필이 될 상대의 모습을 미리 본 이후, 뒤에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것이 형상화되는데 있어서는 두 작품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강홍」에서 혼인에 대한 예시는 귀향에 대한 예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먼저 만강홍이 암시적으로 꿈을 꾸자, 녹란이 그 꿈을 해몽해 준다. 자신의 해몽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자신이 꾸은 꿈을 덧붙인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거쳐야 될 시험이 있음을 알린다. 현실생활에서 그 시험의 통과로 꿈에 의한 예시가 실현된다. 이와같이 「만강홍」에서의 꿈은 처음에는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의미 파악이 모호하지만, 몇 차례의 증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즉 언제 누구와 어떠한 형태로 혼인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까지 제시된다.

반면 장한철 표류담에서 혼인에 대한 예시는 아주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장한철은 어떤 여인이 나타나 음식을 먹여주는 꿈을 꾸었는데, 그녀를 실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을 인연으로 혼인한다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강홍」의 경우는 허구화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혼인을 알리는 꿈의 예시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발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해, 사실의 기록물인 장한철 표류담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 표출 양상이 비록 다르긴 해도 그 예시는 표류인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이 작품구성에 있어서 표류담과 연애담의 혼합된 형태이며 꿈에 의한 미래 예시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작품 배경면에서 오호해중의 섬이라는 공통된 설정으로 인하여, 이들이 영향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냐 라는 추정에서 출발했다.

이것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의 개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두 결과를 대비시켜 보았다. 그것은 작품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건 전개, 인물 유형, 꿈에 의한 미래 예시 등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그결과 상당한 유사성뿐만 아니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사건 전개의 경우, 작품이 표류담과 연애담의 두 줄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이야기를 독립시켜 살펴 보았다. 표류담의 경우, 항해→표류(시련①)→구조→도둑떼의 습격(시련②)→구조→도둑떼의 습격이나 제2의 조난(시련③)→귀향 등의 형태로 기본적인 줄기는 같으나, 시련 ③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애담의 경우, 만남→연모→이별(혼인 약속)→그리움(이별)→재회 등의 형태로 기본적인 흐름은 같으나, 이별의 시기에 다른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사건 구성에 있어서는 표류담과 연애담의 혼재라는 점 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상황의 유사성을 띠고 있다. 다만 표류담과 연애담의 비중면에서 다소 차이가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와 상관성이 있지 않나 한다.

다음 인물 유형의 경우, 사건 전개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에 따라, 표류담의 인물과 연애담의 인물로 나뉘었다. 표류담의 인물에는 인도자, 협력자, 방해자 등이 있으며, 연애담의 경우에는 남녀 주인공, 대립자, 증개자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인물들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줄기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장한철 표류담은 표류담의 인물 중 사공의 역할이 축소되고 장한철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연애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이것은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작가와 시대상과 관련된 탓이 아닌가 한다. 거기에 비해 「만강홍」은 허구화된 작품이므로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꿈에 의한 미래 예시이다. 이것 역시 표류와 연애의 마무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 다 예시에 의해 사건의 귀결점이 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형상화에 있어 다소 차이는 보인다. 「만강홍」은 허구화된 작품이므로 꿈에 의한 예시가 암시적인 상태에서 명료화되기까지의 섬세한 점진적 형태를 띠는데 반해, 장한철 표류담은 단편적이며 막연한 투영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작품이 꿈에 의해 미래예시가 이루어진다는 유사성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만강홍」과 장한철 표류담군의 작품은 사건 전개, 인물 유형, 꿈에 의한 미래 예시가 우연적인 유사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공통 요소가 두 작품의 영향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참 고 문 헌

- 권순중(1989), 「전통극과 근대극의 접맥양상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택무(1989), 『조선민간극』, 경기도 고양군, 예니
- 김우성 임형택(1973), 「부남성장생표대양」, 『이조한문단편집』, 서울,
일조각, 456-461쪽
- 오익제(1987), 『천도교요의』,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 윤일수(1991), 「만강홍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일수(1992), 「표류담의 전통과 작품화」, 『영남어문학21집』,
대구, 영남어문학회, 347-368쪽
- 윤일수(1993), 「만강홍과 영산홍 의 원본 확정 및 이본 개작 의도」,
『영남어문학23집』, 대구, 영남어문학회, 241-258쪽
- 이규호(1983), 「개화기 한문소설 만강홍 연구」, 『우전신희열선생
교회기념논총』, 서울, 창비사, 429-453쪽
- 이석룡(1987), 「황산 이종린」, 「성주이씨종보」, 서울, 성주이씨대종회
- 이원명(1958), 「표만리십인전환」, 「동야회집7」, 경대사대 국어학회
연구실발행, 42-50쪽
- 이종린(1914. a), 『만강홍』, 서울, 회동서관
- 이종린(1914. b), 『영산홍』, 서울, 박영사
- 임명덕(1969), 「만강홍」, 『한국한문단편전집』, 대만, 중국문화대학출판부
- 장한철(1961), 「표해록」, 『인문과학6집』,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57-174쪽
- 장한철저 정병욱역(1979), 『표해록』, 서울, 범우사
- 정명기편(1987), 「부남성장생표대양」, 『한국야담자료집성2. 청구야담6』,
서울, 계명사 396-418쪽
- 정병욱(1961), 「표해록해제」, 『인문과학6집』, 연세대학교인문과학
연구소, 175-191쪽
- 조동일(1989), 『한국문학통사 3.4』, 서울, 지식산업사